

인간을 닮은 인형, 기계를 닮은 인간: 정금형의 “휘트니스 가이드”¹⁾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학)

고대 그리스 신화와 설화에는 생명을 가진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솜씨가 좋은 장인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조각에 생명을 불어 넣었고, 금속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자동인형을 만들었다. 나비스 왕이 왕비와 비슷한 형상으로 만든 인형 아페가는 왕의 적이 술에 취했을 때 끌어안고 으스러뜨리는 살인 기계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신화는 피그말리온 신화일 것이다. 키프로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사랑할 여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대리석 조각상을 만들어 이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조각상을 자신의 애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양 이를 애무하고 키스하면서 이 조각상이 생명을 가지길 기원하곤 했는데, 결국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조각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시켜주었다. 신화에 의하면, 이 둘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피그말리온”(2005)은 “육체 예술가”라는 닷선 칭호를 얻고 있는 정금형 작가의 데뷔작이다. 정금형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발에 얼굴 가면을 씌운 피그말리온과 인형 갈라테이아의 사랑을 연출했다. 여기에서 작가의 발에 달린 인형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아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체 일부의 불완전한 연장이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있다고보다는 어정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그녀의 작업에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가 서로 몸을 더듬는 행위는 사람이 사람을 애무하는 행위와 다르고, 사람이 조각상이나 인형을 애무하는 행위와도 매우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그것은 내가 변형된 내 몸의 일부를 애무하는 것.

1) 정금형, “휘트니스 가이드”,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시아〉 연계전시, 2015년 9월 17일, 18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불완전한 안드로이드가 자신보다 더 불완전한 인형을 애무하는 것, 보강송의 오리 자동인형이 “러버 덕”과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다. 사람이 사람을 흉내 내는 안드로이드를 보면 호감도가 푹 떨어지면서 “기괴한”(uncanny)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인공지능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는데, 정금형의 작업은 정확히 이런 “기괴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살아있지만 온전히 살아 있는 것은 아닌 존재와의 사랑이라는 테마는 2006년에 정금형이 연출한 “진공청소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여기서 정금형은 진공청소기의 호스에 인형 머리를 달고 호스의 끝이 인형의 입과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전원을 넣었을 때 살아 있는 것 같은 진공청소기 인형은 작가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작가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 내려갔다. 인형이 할 수 있는 것은 흡입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서 정금형 작가는 마치 탈진할 정도로 진공청소기 기계와 사랑을 나누었다. 1969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단편 과학 소설에서 주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진공청소기가 등장한다 (Sheckley 1969). 그런데 이 소설에서 진공청소기는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이고, 주인 여자에 의해서 플러그가 뽑혀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정금형의 작업에서 전기청소기와 여성의 관계는 이런 파국적인 결말로 끝을 맺지 않는다.

기계와의 사랑은 2008년에 발표한 “유압진동기”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²⁾ 실제 굴삭기와 모형 굴삭기를 이용한 이 비디오작품의 정점은 작가가 조종하는 굴삭기가 그녀를 모사해서 해변에 만들어 놓은 모래 인형을 무너뜨리는, 더 정확하게는 ‘겹탈’하는 장면이다. 그녀가 조종하는 거대한 굴삭기는 강력한 피스톤 운동으로 모래 인형의 사타구니를 공략한다. 얼핏 보면 남성적인 기계가 여성을 강간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작품 곳곳에서 작가의 의도가 이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일 필요도 없고, 기계가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남성성을 상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금형은 기계가 인간을, 특히 여성을 소외시키기 보다는, 여성과의

2) 이 작품을 연기하기 위해서 정금형은 굴삭기 조종을 배워서 면허증을 취득한 뒤에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고 조종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첫 번째로 굴삭기 면허를 취득한 여성이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녀가 표현하려고 하는 “사랑” “자위” “오르가즘”은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농축된 것이다. 기계와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대로의 새로운 관계이다. 그녀의 퍼포먼스에서 인형과 기계는 더 많은 가능성과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비인간 행위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금형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부했다. 그녀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기계와 같은 비인간이 인간들 사이에, 비인간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연관을 만들어 나가는 ‘번역’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009년에 정금형은 “피그말리온” 같은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서 “금으로 만든 인형”이란 연작을 소개했다. 이 작품에는 “오르가즘에 집착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2011년에는 “휘트니스 가이드”라는 작업을 선보였다. 그러다가 그 뒤로는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유럽의 예술계에 알렸는데,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시아>전의 연계 전시로 “휘트니스 가이드”를 다시 공연했다. 이 작품은 헬스클럽에서 볼 수 있는 “덜덜이”, 싸이클론, 트레드밀, 신장 측정기 등의 운동과 소리를 이용해서 기계와의 사랑을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정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피그말리온 신화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에 의해서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으로 재탄생했다.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는 쇼의 <피그말리온>을 해피엔딩으로 각색한 것이다. 쇼의 <피그말리온>은 히긴스라는 발음 전공 교수가 꽃을 파는 하층 계급의 처녀 일라이자의 발음, 악센트, 표현을 고쳐서 6개월 만에 그녀를 상류 계급으로 바꾸어 놓는 것에 대해 친구와 내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귀족 부인의 말과 매너를 익히지만, 자신이 귀족 부인이 아니며 그렇다고 과거의 꽃 파는 처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히긴스 교수에게 항의한다. 일라이자는 이 과정에서 귀족의 발음과 매너를 얻었지만,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음을 한탄한다.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와 달리 버나드 쇼의 원작에서 히긴스와 일라이자는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인간 행위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열어주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맺고 있는 연관의 중간에 끼어들고, 이를 단절시키는 작업을 한다(intersement). 새로운 관계는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지만, 잃어버린 연관과 가능성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인간을 닮은 인형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단절은 무엇일까? 정금형 작가의 새로운 퍼포먼스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참 고 문 헌

Sheckley, Robert. 1969. “Can You Feel Anything When I Do This?”
Playboy (August, 1969).